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자 2022년 8월 21일(일) 총 2매		
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	담당 자 • 환경농업담당 양충숙 ☎440-6921 • 담당자 김중태 ☎440-6922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, 올해 벼 첫 수확!**

- 8.21일 인천 서구에서 모내기 109일 만에 첫 수확 개시 -  
 - 인천시 농업기술센터, 남은 더위와 침수피해 대응 당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8월 21일 서구 대곡동에서 올해 벼 첫 수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.

지난 5월 5일 서구 대곡동 박길수·김용옥씨 농가의 1.6ha 면적에 모내기한 조생종 진옥벼를 109일 만에 수확해, 국내에서 주로 재배하고 소비되는 중만생종(생육기간 160~180일)에 비해 약 50일 가량 빠르게 수확했으며 올 추석에도 햅쌀을 맛 볼 수 있게 됐다.

한편 올해 관내 조생종 벼의 작황은 6월 초까지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 출수가 늦어지고, 출수 후 8월 초 집중호우(1일~10일 누적강수량 : 557.8mm)로 일부 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7월 중 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많아(198.5시간, 평년의 128%) 평년과 비슷한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“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,

웅진군내 44.2ha를 비롯해 관내 일부지역에서 벼 침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.”며 “관내 벼 농가에서는 장마이후 폭염에 대응해 물 걸러대기로 수량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흰잎마름병을 비롯한 세균성 병해와 충해 방지를 위해 적기 방제에 힘써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 드린다.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